이영애·최민식·이정재… 그들이 보고 싶다

장기 휴식 스타들 지금 어디에?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올 최대 화제작으로 꼽히는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은 이병헌과 정우성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병헌은 지난 2006년 찍은 영화 '그해 여름' 이후 2년만의 컴백이고, 정우성 역시 '중천' 이후 2년여만에 관객들을 만난다.

최근 꾸준히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남자 배우로는 송강호·설경구·황정민·정재영 등을 들 수 있고 여배우로는 김혜수·전도연·문소리·임수정·수애 정도 만이 눈에 띈다.

오랫동안 만날 수 없는 배우들은 언제쯤 컴백할까.

가장 오랜 기간 스크린에서 사라진 배우는 이영애다. 지난 2005년 '친절한 금자씨' 이후 4년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다른 배우들의 경우 결국 불발로 그치기는 했지만 종종 캐스팅 소식이 들려오는 반면 이영애는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캐스팅 소식이 들려오는 곳은 TV 드라마쪽이다. 이영애를 스타덤에 올렸던 드라마 '대장금'의 김영현 작가와 '공동경비구역 JSA'의 박상연 작가가 공동 집필을 맡은 60부작 대하드라마 '선덕여왕'이 적극적인 구애 작업을 펼쳤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여성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릴 드라마 '대물' 역시, 캐스팅 이야기가 오고가다 결국 고현정이 낙점됐다. 노출이 급격히 적어지면서 최근에는 'CF 퀸'이라는 명성도 차츰 사라지고 있다.

설경구·송강호와 함께 '충무로 트로이카'로 불렸던 최민식은 '밀양', '놈놈놈', '박쥐' 등에 연속적으로 출연한 송강호나 '싸움', '강철중'의 설경구와 달리 별다른 활동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사회적 발언에 앞장섰던 최민식은 지난 2005년 류승범과 출연한 '주먹이 운다' 이후 긴 휴식을 가진 후 작가주의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날 차비를 하고 있다.

이정재

이영애

최민식은 '검은 땅의 소녀와',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 등을 만들어온 전수일 감독의 영화 '히말라야-바람이 머무는 곳'으로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다. 최민식은 극중 사망한 네팔 노동자의 유골을 그의 가족에게 전해주려고 히말라야의 고산 마을을 찾아가는 인물을 맡아 최근 네팔 현지에서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 2005년작인 곽경택 감독의 '태풍' 이후 한국영화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장동건도 팬들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배우다.

지난 2006년 첸카이거 감독의 '무극'에 출연한 후 할리우드 진출작 '런드리 워리어'의 촬영을 마친 장동건은 좀처럼 차기작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역시 '태풍' 이후 활동이 뜸했던 이정재는 여균동 감독의 '1724 기방 난동 사건'의 의혈청년 천둥역으로 3년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최지우와 함께 출연한 드라마 '에어시티'에 출연,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한 이정재는 재일교포 작가 츠카 코우헤이의 동명원작을 바탕으로 한 '비룡전'의 주인공으로도 캐스팅됐다.

지난 2006년 '타짜'의 흥행 성공 이후 '맨 오브 라만차' '헤드윅' 등 뮤지컬 무대에 주로 서왔던 조승우는 최근 '고고 70'의 촬영을 마치고 추석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또 명성황후의 그녀를 사랑한 무사의 이야기를 그린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호위무사역으로 캐스팅돼 수애와 촬영중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후 활동을 멈춘 이나영의 행보도 궁금하다. 이나영은 '봄여름가을겨울'의 김기덕 감독의 신작 '비몽'의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꿈과 현실을 오가는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얽힌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비몽'에서 이나영은 오다기리 죠와 호흡을 맞춘다.

그밖에 '미녀는 괴로워'로 흥행 배우의 대열에 들어선 김아중 역시 '고고 70' 등 몇몇 작품에서 캐스팅 물망에 올랐으나 아직 영화 캐스팅 소식이 없어 당분간 스크린에서 만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아중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적벽대전	천지를 뒤흔든 세기의 전쟁이 시작된다. 유비와 손권은 연합군 결성하는데. 15세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잘못된 만남	어린시절 단짝 친구인 열혈 경찰과 택시기사가 이웃사촌이 되면서 벌이는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하미	
REC	리얼TV다큐 프로그램의 리포터 안젤라와 카메라맨 파블로는 소방대원들을 따라 사고현장으로 출동한다.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CGV(상무), 하미	
핸콕	독특한 성격의 까칠한 히어로 핸콕(윌 스미스)이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 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노크 : 낯선자들의 방문	문 밖에 누군가 있다. 어느날 문을 두드리는 소녀들의 방문을 받은 충격적 실화.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크로우즈 제로	초특급 사고뭉치 불량 학생들이 모두 모인 악명 높은 스즈란 고등학교의 세력 다툼을 그렸다. 15세 이상 관람가.
하미	
원티드	여자 킬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액션물로 안젤리나 졸리, 모간 프리먼,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을 맡았다.19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크로싱	탈북자를 소재로 한 휴먼 드라마로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백만장자의 첫사랑' 등을 만든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엔터	
강철중:공공의 적 1-1	강동서 강력반 꼴통 형사 강철중(설경구)이 5년만에 돌아왔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쿵푸 팬더	키 120㎝, 몸무게 160㎏에 시속 30㎝의 팬더곰이 쿵푸의 달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인크레더블 헐크	녹색 괴물 '헐크'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정부 군대의 끈질긴 추격을 받고 쫓기게 된다. 15세 관람가.
하미, 엔터	
인디아나 존스 4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인디아나 존스가 이번엔 전설의 크리스털 해골을 찾아 나선다. 12세 이상 관람가.
엔터	
해프닝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현상들이 뉴욕의 곳곳에서 발생되는 공포물. 18세 이상 관람가.
엔터	

주목! 이 영화

'적벽대전-거대한 전쟁의 시작'

오우삼 감독의 컴백작… 양조위·금성무·장첸 등 호흡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인 '삼국지 연의', 그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꼽히는 '적벽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다.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등 아시아 5개국이 무려 800억원을 쏟아부은 대작으로 '첩혈쌍웅', '영웅본색'을 만든 후 '페이스 오프' 등으로 할리우드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진 오우삼 감독의 컴백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 촉, 오 3국이 대립하던 서기 208년 중국. 천하통일을 위해 중국대륙을 피로 물들여가던 '위'의 조조는 뛰어난 통치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륙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한편, 조조에게 쫓겨 퇴각에 퇴각을 거듭하던 '촉'의 유비군은 손권이 통치하는 '오'나라 인근 강남지역으로 피난을 떠난다. 하지만 조조에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뭉친 유비군은 남은 병력으로 필사의 항쟁을 다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오'와의 연합세력을 결성해야만 하는데, 전쟁을 기피하는 손권과의 결탁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유비군의 책사인 제갈량은 홀로 '오'나라로 향한다.

기존의 영화에서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 대신 주유와 손권, 조조가 중심인물로 포진해 있으며 주유역의 양조위를 비롯해, 금성무·장첸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적벽대전' 2부는 올 연말 개봉된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